

두루미 관찰 매너

두루미 먹이 주는 곳
소리내며 뛰지 말고 조용히 보세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충분히 떨어져서 보세요. 무서워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놀랍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 가지 마십시오.

기빠서 환성을 지르지 말고
조용히 보세요
큰 소리를 내면 놀랍니다.

먹이 주는 규칙이 따로 있어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먹이가 적은 겨울철에만 공적인 먹이 주는 곳에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찍어 주세요.
플래시를 터트리지 마세요.
빛에 놀랍니다.

조금이라도 먹이를 주면
두루미가 애완동물이 돼요!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먹이를 줄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사람만.
담배, 쓰레기, 물건 던지기 금지
조심해 주세요
떨어진 쓰레기를 잘못해서 두루미가
주어 먹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루미 먹이주기에 대해

일본의 두루미는 수렵으로 인한 난획과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등으로 한 때 수 십 마리까지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 의해 시작되었던 겨울철 먹이주기 활동 등에 의하여 서서히 서식수가 늘어서 현재 약 1,000마리가 넘는 숫자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먹이주기는 겨울에 먹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생기는 농축산물 피해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먹이 주는 곳에서는 기간과 수법 등 규칙을 정하고, 사적인 먹이주기에 대해서는 방법 개선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루미(성조)
실물 크기 발자국, 원발

환경성 구시로자연환경사무소
우편번호 085-8639
구시로시 사이와이초10-3 구시로지방합동청사 4층
전화 (0154) 32-7500
사무소 홈페이지: <http://hokkaido.env.go.jp/kushiro/>

겨울 두루미를 만나러 가자!

두루미와사귀는 법



환경성 구시로자연환경사무소

